

“아내 설거지 보며 쓴 ‘낭만에 대하여’ 20여년간 사랑받은 인생노래 됐죠”



‘낭만 가객’ 최백호, 데뷔 40주년 기념 앨범 발표

싱어송라이터 최백호(67·사진)는 ‘낭만 가객’으로 불린다. 가객보다는 ‘낭만’에 방점이 찍히는 뮤지션이다.

45세이던 1995년 발표해 20여 년간 사랑받은 대표곡 ‘낭만에 대하여’의 영향이 컸지만 까칠한 탁성에 갖든 쓸쓸한 무드는 평범한 가사에도 낭만을 입히는 운치가 있다.

“전 꽤 낭만적인 사람이예요. 허허허. 인생이란 게 깊고 복잡하게 계산하면 힘들어지죠. 고민이 있어도 길게 못 가고 심하게 상처도 안 받아요.”

천성적으로 부끄럼이 많고 소극적이던 그가 어느새 올해로 40년간 무대에 섰다. 23일 0시 선공개한 ‘바다 끝’을 시작으로 3월 데뷔 40주년 기념 앨범 ‘불혹’을 발표하고 같은 달 11~12일 서울 LG아트센터에서 기념 공연을 펼친다.

에코브릿지가 작사·작곡한 ‘바다 끝’은 최백호의 동년배에게도 감동을 얻을 인생의 무게가 실린 곡이다. 나이 들며 겪은 여러 이별을 바다 끝에 다 놓아주는 노랫말이 서정시 같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최백호에게 가장 아꼈던 이별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이다. 부산 기장군 출신인 그는 생후 5개월에 2대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고, 20살에 암투병하던 어머니를 떠나 보냈다.

그는 기억조차 없는 아버지에 대해 “부산 영도에서 기호 6번 무소속으로 출마해 29살에 국회의원이 되셨다”며 “이승만 정권 시절 내무부장관 하신 막강한 분과 겨뤘던 가짜 큰 표자로 이겼다고 한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보러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시는 길에 김천 부근 다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반대편에서 오던 타카군 트럭 중 한대가 갑자기 튀어나와 충돌했는데 가족은 당시 암살이라고 생각했나보다. 정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최백호는 원래 화가가 꿈이었다. 그러나 결국 미대 진학을 포기하고 군에서 의사가 제대한 그는 우연히 부산의 한 라이브클럽에서 노래할 기회를 얻었다.

친구의 매형이 라이브클럽을 열면서 노래할 가수를 찾자 손님이 드문 시간에 부르기로 하고 무대에 올랐다. 1주일 만에 입소문이 났고 서울의 헬부르 출신 가수들이 내려와 노래하던 대형 라이브클럽으로 스키아웃 됐다.

“그곳에서 가수영씨를 만났는데 그분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로 쓰면서 저를 서울의 서라벌레코드에 소개해줬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기타를 치며 곡도 몇 곡 만들어 첫 앨범부터 자작곡을 담았죠.”

서라벌레코드와 5년 전속계약을 한 그는 1977년 1집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를 발표했다. 어머니를 떠올리며 쓴 이 사모곡으로 MBC에서 신인상을 받는 등 바로 인기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두 장의 앨범을 낼 때까지 수익을 배분받지 못해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 자구레코드로 옮긴 그는 1979년 ‘영일만 친구’를 낸 뒤부터 인기가 하락세를 탔다고 한다.

그는 “술집에서 노래하는 게 지치더라”며 “마침 지인이 미국행을 제안해서 한 달 만에 집을 꾸러 가족과 떠난 게 1990년”이라고 기억했다.

로스앤젤레스 라디오코리아에서 DJ로 활동한 그는 그곳의 삶도 녹록지 않자 결국 1992년 귀국했다. 그리고 쓴 곡이 바로 ‘낭만에 대하여’이다.

노래 중간의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란 가사가 가장 먼저 써지더라고 했다.

“방 너머에서 설거지하는 아내를 보면서 ‘내 첫사랑도 저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란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하하. 그 뒤로 ‘옛날식 다방’, ‘색소폰’으로 살이 붙었죠. 발표하고 1년 반가량 있다가 김수현 선생님의 ‘목욕탕집 남자들’에 삽입되며 뿔뿔이 났어요. 이 곡은 20년이 지나도 힘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없어요. 인생곡이죠.”

40년 앨범에도 이 두 곡을 신는다. 또 자작곡인 ‘위로’와 ‘하루 종일’을 비롯해 혜은이의 ‘눈물샘’과 린의 ‘그리움은 사랑이 아니다’ 등 그가 작곡해준 다른 가수의 곡도 채웠다.

그간 동료나 후배들에게 곡을 선물하고 아이유와 듀엣 하는 등 열린 마음으로 교류해온 그는 2011년부터 원로 가수와 인디밴드를 지원하는 새한국음악발전소를 이끌고 있다.

그는 “불혹은 미혹하지 않게 꼭 채웠다는 뜻이라며 “이제 욕심을 내려놓고 더 채우지 않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예술의 경계를 넘은 그의 낭만적인 욕심은 버릴 수 없는 듯하다. 뮤지션스페이스에서 3년 만의 그림 전시회를 계획 중이며, 무명 가수의 슬픈 이야기를 담은 영화 ‘미사리’의 시나리오를 써달라며 언젠가는 영화감독으로 데뷔하고 싶다고 했다. /연합뉴스



“데뷔 25년, 매 순간 기적 같아요”

서태지, 생일 맞아 팬들에게 편지

“생각해보면 25년간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커다란 기적 같아요.”

올해로 데뷔 25주년을 맞은 서태지(본명 정현철·45)가 생일인 지난 21일 공식 홈페이지 서태지닷컴에 ‘2017년 다시 맞이하는 생일’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얼마 뒤면 25년 전 꼬꼬마였던 여러분을 처음 만나게 되는 날이 다가온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가 서태지와아이들 1집을 발표하며 데뷔한 건 1992년 3월이다.

생일 때마다 팬들을 위해 글을 올리는데 그는 “우리가 같은 추억을 간직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나이를 먹어갈 수 있는 것 또한 기적같이 감사한 일이라 생각하며 생일은 좀 더 특별한 느낌”이라며 “앞으로도 더 멋진 기적을 함께 만들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인사했다.

그는 이 글에서 2015년 생일에 서울 마포구 서교동 V홀에서 첫 클럽 공연 ‘생일 빵 파티’를 개최한 추억도 공유했다. 같은 장소에서는 지난 20일부터 3월 1일까지 9집 때의 공연 영상 등을 만날 수 있는 상영회 ‘미라클(Miracle)’이 열리고 있다.

그는 “딱 2년 전 ‘생일 빵 파티’ 첫 클럽 공연을 개최한 곳인데 여기서 같은 날 상영회를 하게 되니 신기하다”며 “‘사실사실 한창 귀여운 나이’에 이곳에서 귀중 공연(?)을 했다. 공연 제목처럼

생일빵도 당하고”라고 떠올렸다. 이어 클럽 공연에 대해 “나와 멤버들, 팔로(서태지가 팬들을 부르는 애칭으로 버팔로의 줄임)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된 느낌이었죠”라며 “하루 할수록 재미있고 중독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상영회의 제목이 ‘미라클’인데 대해서는 2014년 10월 발표한 9집 활동에서 일어난 일들이 마치 기적 같아서 정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랜 기다림 끝에 컴백 공연으로 떨리는 재회를 했고,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마음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도 했고, 어느덧 월기를 회복한 듯 몸만만 고기들의 ‘콰이어트 나잇’ 전국투어의 시작과 끝, 그리고 엄청 중독된 에미징 클럽(클럽 공연)들. 마지막으로 아름답던 ‘팬타포트’의 밤하늘까지. 모두가 잊지 못할 순간들이 됐고 이런 시간과 과정들이 어쩌면 기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불혹과 지평을 지난 게 엇그제 같은데 이번엔 중후해졌다”며 팬들의 축하에 화답하고 ‘정현철’이라고 좋은 일에 나서는 팬들도 멋지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어 “여러분이 기다리는 특별한 근황이나 좋은 소식이 아직 없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생각해 달라”고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불발)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TV블로그 공감라 30 아침연속극 (아침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소셜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사람과 사람들 (재) 50 팔도판상 스페셜	00 수목드라마(다시, 첫사랑) (재)	00 불어라 미몽아 (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50 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00 MBC 정오뉴스 20 2017 지구촌 어린이 돕기 희망더하기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공감라 55 특선다큐 (그래도 행복한 학교 가는길)
1	00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5 네트워킹기획 문화산책 55 우리말 겨우기 (재)		30 MBC스포츠 제1회 MBC꿈나무축구 겨울리그 개막전	55 닥터 365
2	45 이웃집 할스 (재)		30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00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3	35 코리아 지오그래피 플러스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이하! 동물탐험대 2 55 내일은 언제나 푸름	20 TV블로그 공감라 25 위대한 유산 55 닥터 365
4	00 4시 뉴스집중	30 누가 누가 잘하나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 스페셜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리라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공감라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55 비타민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공사창립특집 8부작 UHD 유네스코 세계유산 감성애니 하루 2	00 수목드라마 (김과장)	00 수목드라마 (미생나인)	00 드라마 스페셜 (사임당, 빛의 일기)
11	00 KBS 뉴스라인 40 KBS 스포츠 중계식	10 해피 투게더	05 희망리레이 토크콘서트 청춘진담	10 자기가 - 백년손님
12		35 동계 아시안게임 기획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MBC 뉴스 24 4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재)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년대 파이아로보(재)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땃땃땃 유치원 1~3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오정 큐비주 09:15 시계마을 티키틱!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무모 <위대한 연마>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새우젓 오일파스타, 콜리플라워 파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12:40 역사채널e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스킨댄스-한자왕국 13:50 그림을 그려요 13:55 출동! 슈퍼힘스 14:2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두키탐험대 15:20 꼬마기사 마이클 15:35 오솔상자 15:45 코코코다코 16:15 두디다들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45 땃땃땃 유치원1~3(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갤럭시 안전 프로젝트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온 개는 없다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미지의 낙원, 카나리아 제도 - 라코에라> 21:30 한국기행 <겨울 산중 별난 인생 - 한평생 외길 인생> 21:50 세계문화기행 <문학의 길을 걷다> 22:45 다문화 고부연결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24:05 세상의 모든 변칙 <매일 밤마다 지름신이 강림하는 이유는?>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3일(음 1월 27일 辛巳)

<p>子</p> <p>48년생 손리대로 풀어나간다면 결과가 좋으리라. 60년생 심심으로써 대해야만 하느니라. 72년생 매우 중하므로 세부적으로 재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84년생 예견한 대로 대처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행운의 숫자 : 87, 06</p>	<p>午</p> <p>42년생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환경이다. 54년생 지나간 흔적을 잘 살펴보면 힌트를 얻게 되리라. 66년생 예전에 접하지 못했던 것이다. 78년생 크게 감동받을 만한 일이 있다. 90년생 원만하게 처리하자. 행운의 숫자 : 48, 98</p>
<p>丑</p> <p>49년생 실의는 있으나 기대해 왔던 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61년생 가장 절실한 부분부터 손을 대는 것이 생산적이다. 73년생 새로운 것보다는 옛것이 더 값있다. 85년생 짐작을 버리고 진용을 정비하는 것이 이익이다. 행운의 숫자 : 90, 86</p>	<p>未</p> <p>43년생 원일이 보인다. 55년생 대의를 생각하자. 67년생 조금만 유의한다면 미흡한 점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79년생 삼시일일 하며 삼가지 않으면 재앙이 따를 수다. 91년생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언의적 상황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45, 16</p>
<p>寅</p> <p>50년생 변수는 없으나 원칙대로 소신을 갖고 임하면 그만이다. 62년생 주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형국이다. 74년생 즉시 시원스럽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6년생 예상했던 모습, 그대로 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7, 36</p>	<p>申</p> <p>44년생 불기피하던 속병으로 알고 수용하라. 56년생 친분과 격식은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이리라. 68년생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만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80년생 만전을 기한 후에 임하는 것이 낫겠다. 행운의 숫자 : 31, 58</p>
<p>卯</p> <p>51년생 입장을 분명히 하고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다. 63년생 양보하지 않는다면 상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자. 75년생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 87년생 아예 여지를 두지 않는 편이 낫겠다. 행운의 숫자 : 77, 07</p>	<p>酉</p> <p>45년생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57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않는다. 69년생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악재를 불러들이는 격이 된다. 81년생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난처해지리라. 행운의 숫자 : 81, 73</p>
<p>辰</p> <p>52년생 오늘은 재물을 얻는 길함이 있다. 64년생 아무리 껴내어도 유혹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76년생 익숙하고 단련이 되어 있어서 할만 하리라. 88년생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80, 02</p>	<p>戌</p> <p>46년생 초기에는 험악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룰 것이다. 58년생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때가 되었다. 70년생 속도를 늦추고 뒤돌아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82년생 길조가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행운의 숫자 : 82, 32</p>
<p>巳</p> <p>53년생 실의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무리가 없었다. 65년생 주체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될 수도 있느니라. 77년생 말을 잘한다면 행운을 부르겠지만 하는 몸은 배는 칼이 되기도 한다. 89년생 모순 속에 갇힌 슬픈이 문제라. 행운의 숫자 : 12, 61</p>	<p>亥</p> <p>47년생 가장 절실한 일에 몰두하자. 59년생 포부를 펼쳐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 71년생 예상 밖의 국면 전환으로 인해서 곤여해지는 운세이다. 83년생 기존의 틀을 재검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행운의 숫자 : 70, 44</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